

내 몸을 가꾸듯이

學術委員長 李 麟 星



醫術은 바른 마음 바른 精神이 아니면 바른 處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옛날부터 醫人은 修養을 게을리하지 말고 安心靜養을 그 으뜸가는 守則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病者를 살리는 職業人으로서는 患者를 相對로 過慾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여러 先賢들이 警句로서 注意를 喚起하며 自己修養을 게을리 하지 말고 患者 몸을 내 몸같이 가꾸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名醫 虞搏은 말하기를 “오래살고 일찍 죽는 것은 天命에 달린 것이라고 하였지만 醫師는 醫術에 精通하여 能手가 됨으로써 能히 일찍 죽을 사람을 오래살게하며 오래 사는 사람은 더욱 오래 살게 하여야 하니 그러므로 醫術은 끝이 없는 것이다. 또 醫術을 施術함에 있어서는 無理와 過慾은 絶對 禁物이다 사람의 몸을 살살이 살피고 비로소 方劑를 찾아야 할 것이니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人身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抱朴子는 “人身猶一國”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한 나라와 같기 때문에 몸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胸腹部는 宮室과 같고 手足은 郊境과 같으며 骨節은 官吏와 같다. 心은 임금과 같고 血은 臣과 같으며 氣는 百姓과 같다 自己 몸을 건사할 줄 알면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 大體로 百姓을 잘 사랑함으로써 그 나라가 便安할 수 있으며 자기 몸의 氣를 아꼈으면 그 몸을 保存할 수가 있다”

우리는 至人이 되기를 願하지는 않으며 또 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最小限의 努力으로 正道를 걸으면서 學術研究의 風土를 造成한다는 目標로 우리의 會誌를 誕生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會誌의 活用과 發展을 爲하여 우리 모두는 내 몸을 가꾸듯이 이 會誌를 사랑하고 利用하여 內實을 期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會誌는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所重한 廣場이요 遺産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길을 찾자는 것은 곧 사람의 몸을 잘 다스리는 길을 찾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爲政者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醫人은 몸을 잘 다스려야 責務를 다 하는 것이 될 것이니 우리는 이의 實現을 爲하여 恒常 研究하고 공부하는 風土를 이 會誌와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發刊된 「驗方新纂」을 보고 그렇게 簡單하게 原稿를 作成하여도 되느냐고 물어오는 회원이 많았습니다

이제 全會員들은 붓을 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생각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많이 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爲政者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官吏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는 病을 잘 다스리는 韓藥業士가 되도록 이 會誌에서 그 길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3號로 한살 더 먹기는 하였지만 이번 회지에도 잘못된 곳은 없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많은 寬容과 鞭撻을 바라면서 發刊辭를 가름합니다

1999. 8. 15